

# 설 연휴 관광객 위한 준비 마쳐

### 익산시, 9~12일 연휴 나흘간 곳곳 전 세대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 준비

익산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 관광객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나흘간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경품을 준비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9일과 11일 미륵사지와 백제왕궁박물관, 보석박물관 등 익산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 3곳 중 한 곳에 방문하면 귀여운 '바롱' 인형을 기념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선물은 각 장소별로 일 50명씩 선착순 제공되며, 관광지에서 찍은 인증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뒤 이벤트 신청 화면(naver.me/GSHepRKH)을 각 관광지 안내소 직원에게 보내주면 된다.

가족·연인·친구 누구나 신나게 놀 수 있는 '이상한 교도소'도 명절 손님맞이에 나선다.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는 방문객을 위해 윗놀이와 고리던지기, 엽전치기, 연만들기 체험

등 전통놀이를 준비했다. 아이부터 부모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즐거운 놀이의 장이 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보석박물관에서 오감만족 가족이벤트 '구이데이 시즌'을 진행한다. 야외에서 연탄불에 닭다리 소시지, 고구마 등을 구워 먹고, 연휴 내내 문을 여는 보석박물관과 다이노키즈월드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백제고도 익산의 찬란한 과거를 체험하는 역사 여행도 준비돼 있다.

익산시 왕도역사관은 설 명절을 맞아 5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굴체험실 행사를 진행한다. 발굴체험에 참여한 어린이에게는 백제왕궁박물관 마스코트인 수부 기와 열쇠고리를 선물로 증정한다. 발굴체험행사는 하루 세 번 진행된다.

이와 함께 왕도역사관은 설 연휴 나흘 내내 민속놀이 체험을 운영한다.

광장에서는 연날리기와 팽이치기, 제기차기, 고리던지기, 부호, 사물놀이, 윷놀이, 팔방치기를 즐길 수 있다. 금마에 있는 마한박물관과 웅포 고분전시관에서도 다양한 민속놀이를 마련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명절 당일인 10일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한다.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은 상시 개방되고 있으며, 정기 해설 시간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흥미로운 백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숙소가 필요한 경우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익산 곳곳의 농촌체험마을과 농촌민박을 활용하면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휴를 활용해 아름다운 익산의 역사문화를 즐긴다면 후회 없는 설 명절이 될 것"이라며 "농촌체험마을과 농촌민박 등을 활용한 숙박과 연계해 알찬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왼쪽)이 설 명절을 앞두고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을 위문했다.

## 설 명절 군부대 격려 방문

### 정현을 익산시장, 35보병사단 · 육군부사관학교 · 7공수여단 등

정현을 익산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을 위문했다.

정 시장은 7일 지역 방위사단인 35보병사단(사단장 오혁제)과 육군부사관학교(학교장 정덕성), 7공수여단(여단장 김종택)을 방문해 군 장병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 긴급 수해복구 작전에 투입된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을 시장은 "작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큰 힘과 용기를 준 장병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익산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장병들의 사기 진작 및 군부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2020년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육군부사관학교 통합입교식, 호국연주회 등 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설 명절 악성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총력

군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농가는 물론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가족질병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성 질병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높고 복구에 상당한 시일 소요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이다.

경상북도 전역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아쟁멧돼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북 영덕, 경기 파주 소재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 군산시, 예비맘 무료 건강검진 엽산제 지원

군산시보건소는 찾아야 임신 준비 중인 예비맘을 대상으로 산전 건강관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나 찾아야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에게 빈혈, 혈액형, 간 기능, B형간염 및 풍진 항체, 매독, 에이즈 등 혈액검사 요당 및 요단백 소변검사 등 산전검사(풍진 외 22종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엽산제 3개월분을 지급한다.

건강검진을 통해 예비 산모의 질병 조기진단으로 기형아 발생과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엽산제 지원을 통해 임신 초기 영산 부족으로 인한 태아의 신경관 결손 등 선천성 기형아 발생을 예방하여 예비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한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예비 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센터로 방문 이후 5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군산=김판근기자

## '청년도전 지원사업' 으로 익산 청년 자신감 회복

### 6개월 이상 취업 · 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만 18~39세 청년... 최대 250만원 · 취업시 최대 50만원

익산지역 구직 청년들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직을 단념한 지역 청년들을 상대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난해부터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9세 청년 180명이다.

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개청한 익산청년시장을 거점으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개별 및 착상담과 멘토링,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기업 탐방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5~25주 동안 진행된다.

또 참여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교육 이수·취업 시 각각 최대 50만 원의 추가 장려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지난해 첫 사업 결과 모집자 80명 중 17명의 취·창업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얻어 정부 성과평가에서 도내 유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직을 단념한 지역 청년들을 상대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합입에 올리는 사업대상자를 180명으로 확대 모집해 지역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25주 장기교육 1기와 2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15주 중기교육의 경우 익산청년시장 누리집을 통한 접수를 거쳐 오는 3월 시작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 부족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취업 자신감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청년 시장을 거점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청년들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전북 첫 액화수소 충전소 봄부터 개시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액화수소 충전소 '익산 목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목천 수소충전소가 이르면 오는 3월 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목천 충전소 설치에는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2021년 12월 관련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시작으로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2022년 5월에는 공모를 통해 민간 운영사업자 'B플러그하이비스'를 선정했다. 현재 공사는 완성검사를 마친 마무리 단계다.

목천 충전소는 전북 최초의 액화수소 충전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액화수소는 같은 공간에서 기체수소 대비 8배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목천 충전소는 수소 송유라인 '넥소'를 기준으로 최대 일 평균 200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 관계자는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차 사용 편의 제고는 커다란 과제"라며 "기존에 설치된 2공단 수소충전소에 더해 목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운영해 익산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진될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